

18 日本水土考・水土解辯・増補 華夷通商考

일본수토고·수토해변·증보 화이통상고

1944년 / 西川如見(니시가와 조겐) / 198면 / 02,10-18 서83일 1944



長 崎(나가사키) 출신의 상인인 西川如見(니시가와 조겐, 1648~1724)이 쓴 책이다. 원래 니시가와 가 천문학에 관해 저술한 책은 20여 권이나 된다. 1716년에는 당시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의 將軍(쇼군) 吉宗(요시무네)에게 천문에 관한 강의를 할 수준이었다.

『日本水土考(일본수토고)』를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의 「택리지(擇里誌)」라 할 수 있다. 이중환(李重煥)과 저술연도도 비슷한데, 13면의 짧은 글이기는 하나 일본 최초의 과학적 인문지리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종래의 유교적인 중국 숭배관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그는 일본은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인 탓에 외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국토 위치의 신비성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토를 찬미하되 “이 나라는 만국의 동쪽에 있으므로 아침 햇살을 제일 먼저 받는 땅이다, 이는 양기 발생의 시발이다… 우리 국호를 日本(일본)이라 하는 것도… 子丑(자축)은 水土(수토)다. 寅卯(인묘)는 다같이 木(목)이다. 木은 水土에서 생한다…”는 식으로 국토 조건을 십이지(十二支)로 풀이하기도 한다.

『水土解辯(수토해변)』은 문고판 30면 분량인데 내용은 ① 국토의 기운성쇠(氣運盛衰)와 ② 장법(葬法)에 대한 것을 문답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①항은 정감록 같은 이야기이고 ②항은 일본의 장의법이 유교의 영향으로 유교식 절차가 복잡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불교 전래로 화장(火葬)이 보급되기는 했으나 말년에 가면 이것도 땅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는 등 말하자면 묘지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이다.

『華夷通商考(화이통상고)』는 1695년에 西川如見(니시가와)가 저술한 것인데 130면이다. 내용은 중국 15개 성(省)을 비롯한 세계 42개국의 의상과 위치, 풍토, 산물을 통상적 견지에서 서술한 것인데 이것은 일본 최초의 지리서라 할 수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 관한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고려, 본명은 고구려임. 팔도(八道)가 있다. 옛날에는 마한(馬韓), 진한, 변한 해서 삼한(三韓)이라 했는데 그후 신라(新羅), 백제, 고구려로 정립한 것도 이 나라다. 유교를 숭배하나 의복은 중국과 다르다. 대단히 추운 나라인데 기후는 일본의 관동(關東) 지방과 비슷하다.”